

새 감독·새 시즌... 광주 FC 무한경쟁 시작됐다



새로운 사령탑 김호영 감독을 앞세운 광주FC 선수단이 28일 광주축구센터에서 러닝을 하며 동계훈련을 시작했다. <광주FC 제공>

광주서 1차 동계훈련 뒤 내년 2월까지 남해·여수서 훈련
웨이트·체력 등 기본 다지기... 전력 점검·새 시즌 구상
김호영 감독 "역동 축구 기대해달라"... 주장 여름 "새 역사 만들 것"

새 사령탑을 앞세운 광주FC의 '무한경쟁'이 시작됐다. 휴식을 끝낸 광주 선수들이 28일 오후 광주축구센터에서 동계훈련을 갖고 2021시즌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오전 소집된 선수들은 훈련에 앞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전원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오후에는 선수들이 스피이크 끈을

다시 동여맸다. 김호영 신임 감독이 지휘하는 광주는 내달 8일까지 안방에서 1차 동계훈련을 갖는다. 이후 남해와 여수로 장소를 옮겨 2~3차 전지훈련을 치른다. 1차 동계 훈련은 '기본'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지난 11월 1일 시즌이 종료된 뒤 오랜 시간 휴

식기가 이어졌던 만큼 웨이트 트레이닝과 체력 훈련을 통한 선수단의 기초체력과 근력 강화가 우선 목표다. 개별전술 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실전을 위한 워밍업에도 나선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새 감독에게 '눈도장'을 찍는 시간이기도 하다. 김 감독은 최근 취임 기자회견에서 "베스트 11은 정해져 있지 않다. 매 경기 달라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 무한 경쟁을 해왔다.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중요하다. 젊은 선수들, 베테랑들 선의의 경쟁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선수 개인도 발전하고, 팀도 발전한다"며 경쟁을 강조했다. 열악한 시민구단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경쟁을 통해 전력 극대화를 꾀하겠다는 생각이다.

김 감독은 개개인의 역량평가를 하면서 선수단 구성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 감독은 "휴식기가 길었던 만큼 선수들의 컨디션을 효율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을 연구 중이다. 선수들의 몸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체력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며 "외국인 선수와 보강이 필요한 부분 등 선수 영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기존 광주보다 더 단단한 스쿼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차 훈련은 11일 남해에서 시작돼 여수를 거쳐 2월 10일까지 계속된다. 2차 훈련에서는 실전 준비에 무게가 쏠리게 된다. 전술훈련과 연습경기 등으로 선수들의 손발을

맞추고, 김 감독이 목표로 한 '역동적인 축구'로 광주만의 색을 입히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 감독은 "올해 광주가 일궈낸 성적은 팀이 하나가 됐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동계 훈련 기간 팀을 더 끈끈하게 만들고 싶다"며 "2021시즌 광주만의 역동적인 축구를 기대해 달라"고 포부를 밝혔다. 주장 여름은 "지난 시즌 많은 성과를 거둬서 부담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김호영 감독님의 말씀처럼 새로운 도전을 향한 기대나 설렘도 크다"며 "광주가 또 다른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이를 악물고 훈련에 임할 것이다"고 새 시즌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호날두 '21세기 최고 축구 선수'

글로브 사커 어워즈, 메시 제쳐... '올해의 선수상' 레반도프스키



호날두



레반도프스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유벤투스)가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를 넘어 21세기 최고 축구 선수로 인정받았다. 호날두는 28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아르마니 호텔에서 끝난 '글로벌 사커 어워즈'에서 '21세기 최고 선수상'을 받았다. 지난 10년간 그와 각종 '최고 선수상'을 양분하다시피 해온 메시를 비롯해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 호나우지뉴(은퇴) 등이 함께 후보로 올랐으나 호날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호날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유벤투스(이탈리아)에서 뛰면서 총 7차례 정구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5차례 경험했다. 2002년 스포르팅(포르투갈)에서 프로로 데뷔

해 20년 가까이 현역으로 뛰면서 공식 경기에서 무려 654골을 기록 중이다. 호날두는 "위대한 선수들과 함께 후보에 올라 영광"이라면서 "팀과 코치진, 구단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수년간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날두는 "더는 땀 뻘 경기장에서 뛰기 싫다. 팬이 없으면 축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종식되기를 바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올해의 선수상'은 바이에른 뮌헨(독일)을 2019-2020시즌 '트레블(3개 대회 우승)'로 이끈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받았다. 앞서 유럽축구연맹(UEFA) 올해의 선수상과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상을 휩쓴 레반도프스키는 이번 수상으로 3관왕에 올랐다. /연합뉴스

K리그1 최고 연봉팀 '전북'... 최하위 '광주 FC'

전북, 상위 1·2위 차지... 선수 평균 4억 3349만원
광주 1억 1600만원... 리그2, 제주·경남·대전·전남 순

전북과 울산이 2020시즌 K리그 연봉 순위에서도 1·2위를 차지했다. 광주는 K리그1 최하위 연봉 팀이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군팀 상주상무를 제외한 K리그1 11개 구단과 K리그2 10개 구단의 선수단 연봉 지급 현황을 발표했다. 선수단 연봉은 기본급과 함께 승리·무승부·출전·공격포인트 수당 등과 옵션 등을 모두 포함한 실질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K리그와 FA컵 경기에 대한 수당도 포함했다. 외국인 선수를 포함한 2020시즌 K리그1 11개 구단 소속 선수 전체 연봉 총액은 952억 422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 9917만원이다. K리그1 챔피언 전북이 선수단 연봉으로 169억 629만원을 지출하며 1위를 기록했다. 준우승팀 울

산이 146억 3919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3·4위는 서울과 수원으로 각각 94억 2016만원, 87억 450만원이었다. 연봉에서는 상위권이었지만 두 팀은 각각 9위와 8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선수 1인당 평균 연봉도 전북 4억 3349만원, 울산 3억 6598만원, 서울 2억 478만원, 수원 1억 8134만원 순이었다. 창단 10년 만에 6강에 진출한 광주는 연봉 총액이 45억 2423만원으로 K리그1 꼴찌였다. 연봉 순위 10위 부산(58억 4492만원)보다도 13억가량 적었다. 1위 전북의 연봉 총액의 27%에 불과한 규모이기도 하다. K리그2까지 범위를 넓히면 광주의 연봉은 전체 21개 구단 중 14위다. 평균연봉도 1억 1600만원으로 K리그1 최하위, 전체 14위였다. 국내 선수 평균연봉으로 좁히면 8981만원으로

K리그1 9위, 전체 12위다. 국내 선수 최고 연봉 상위 5위 자리도 전북과 울산이 싸늘이했다. 전북 김보경이 13억 5800만원으로 '연봉왕'에 등극했고, 전북 홍정호(12억 6100만원), 울산 이청용(12억 5800만원), 울산 조현우(10억 9600만원), 울산 윤빛가람(10억 6500만원) 순이었다. 외국인 선수 중에서는 대구 세정야가 14억 3900만원을 챙겨 연봉 1위 자리에 올랐다. 이어 울산 주니오(11억 1300만원), 대전 안드레(10억 7600만원), 인천 무고사(10억 3400만원), 서울 오스마르(9억 8900만원)가 연봉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편 K리그2 10개 구단의 연봉 총액은 421억 396만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 686만원이었다. 우승팀 제주가 가장 많은 74억 576만원(평균연봉 1억 6457만원)을 선수 인건비로 썼고, 경남(69억 2906만원·1억 6497만원), 대전(68억 5344만원·1억 6715만원), 전남(40억 7842만원·9947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김여울 기자 wool@

'손' 빠지면 '힘' 빠지는 토트넘

EPL 울버햄프턴전 손흥민 교체 뒤 실점 1-1... 4경기 연속 무승

손흥민(28)의 '토트넘 100호 골'은 다음 기회로 미뤄졌고, 토트넘은 4경기 연속 무승의 부진에서 탈출하지 못했다. 토트넘은 28일(한국시간) 영국 울버햄프턴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021 프리미어리그(EPL) 15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경기 시작 1분 만에 나온 탕귀 은돔벨레의 선제골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울버햄프턴 원더러스와 1-1로 비겼다.

7승 5무 3패가 된 토트넘은 5위(승점 26)로 순위를 3계단 끌어올렸다. 그러나 앞서 리버풀(1-2), 레스터 시티(0-2) 등 강팀을 상대로 연패한 토트넘은 중위권의 울버햄프턴을 상대로도 승리 사냥에 실패, 정구리그 4경기 연속 무승(2무 2패)을 기록하며 우승 전망을 어둡게 했다. 또 원정 4경기 연속 무승(3무 1패)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했다. 연말 '박싱 데이' 연전의 첫 정구리그 경기에서 아

쉬운 무승부를 기록한 토트넘은 31일 오전 3시 폴럼을 상대로 정구리그 5경기만의 승리에 도전한다.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후반 38분 에릭 라멜라와 교체될 때까지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정구리그 12호 골, 5호 도움 사냥에 실패했다. 2015년 8월 토트넘 입단 이래 프로 공식전에서 총 99골을 기록 중인 손흥민은 지난 카라바오컵 8강전까지 포함해 3경기 연속 골맛을 보지 못해 '토트넘 100호골' 달성을 다음 기회로 미뤘다. 조제 모리뉴 토트넘 감독은 마지막 교체 카드도 손흥민을 빼고 라멜라를 투입했고, 이후 3분 만에 실점했다. 울버햄프턴은 후반 41분 페드로 네토가 오른쪽에서 찬 코너킥을 로망 사이스가 헤더로 마무리해 동점골을 넣었다. /연합뉴스